

## 내포 가야산의 불교유산 조사 제언

### 1. 흙 속의 진주 내포(內浦)

우리는 현재 산업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자원이 산업도시에 모인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쉬운 평야를 택하여 터를 잡는다. 그러나 과거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자급적 경제에서 좋은 터전은 산을 끼고 물을 끌어서 쓰기 좋은 곳이었다.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의 단어이다.

산에 기대어 아늑한 들판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길지였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바로 그러한 산자락에 역사 유산이 몰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이러한 지역이 교통의 오지로 전락하고, 그 결과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진 곳도 많다. 내포(內浦)가 그 가운데



가야산의 절경

한 곳이다.

우리 선조들이 산세(山勢)를 읽는 방법은 현재와는 달랐다. 현대인에게 알려진 산맥은 지질학적 구조선일 뿐, 지표상의 굴곡을 살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선인들은 일상생활에 직접 연관된 지형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산과 강을 함께 읽어내렸다. 산은 마치 용이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대고, 또한 끊어지는 법이 없다.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도 마찬가지다.

산줄기가 끊어지는 법이 없으니, 그 출발점[祖宗]이 되는 산이 있게 마련이다. 모든 강의 발



오 석 민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문헌팀

원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선인들은 한반도의 시작을 백두산에서 찾았기에, 백두산이 민족의 성지가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모든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단지 곳곳에서 가지를 쳤을 뿐이다. 백두에서 시작된 중심 산줄기를 우리는 백두대간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백두대간을 따라 가보자. 백두대간은 북부지방에서는 고원지대를 지나는 동안에는 약간의 굴곡을 이루는데 불과하다. 산줄기가 개마고원이라는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중부지방에 이르면 마치 동물의 등뼈처럼 솟아 올라 동해안을 따라 남진한다. 그리고 태백산에 이르러 비로소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속리산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달려 지리산으로 끝을 맺는다.

비유하자면, 백두에서 함흥 부근까지는 머리와 목뼈요, 중부지방은 허리뼈이고, 남부지방은 다리뼈라 할 것이다. 등뼈를 형성하는 중부지방에서는 산악들이 거칠게 하늘을 향하여 솟아올랐으니, 한반도의 수많은 명산은 이 구역에 집중한다. 명승지로 일컬어지는 이 일대의 산악은 고승을 비롯한 위인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 지방의 명산들은 고승과 명덕(明德)들의 수양처였지, 보통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아니었다.

충청도의 산줄기는 속리산에서 갈라진 것이다. 속리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줄기를 한남금북정맥이라고 불렀으니, 곧 한강 남쪽과 금강 북쪽의 산줄기라는 뜻이다. 한남금북정맥은 죽산의 칠현산에서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나누어진다. 내

포는 바로 금북정맥이 차령에서 남쪽으로 내달리다가, 오서산에서 다시 북상하면서 형성된 산 언저리의 고을들을 이르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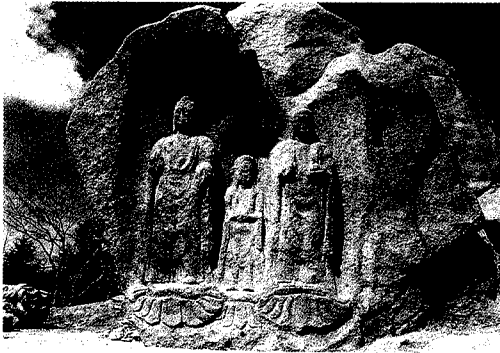
차령에서 오서산까지 남진하다가, 다시 북쪽 가야산을 향하여 북쪽으로 방향을 바꾼 탓에, 산줄기는 V자형으로 뻗은 형세가 되었다. 이 산줄기 사이에는 삼교천과 무한천을 중심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해에 연한 갯고을이 자리하였다.

들판이라 했으니, 삼교천 방조제 완공 전에는 예산 땅까지 배가 출입하였고, 곳곳에 포구들이 즐비했으니, 해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안개[內浦]'라는 지명은 그런 의미로 읽어야 할 이름이다.

관동지방이 하늘로 솟은 거악(巨嶽)들로 빼어난 곳이라면, 내포는 비산비야(非山非野)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터전이다. 일찍이 한 화가가 한국 농촌을 보려면 내포로 가라 했듯이, 내포지방은 높지는 않지만 아담한 산줄기가 들판을 포근하게 감싸는 곳이다.

금북정맥으로 하여 생겨난 내포 고을에 산줄기가 북상하다가 문득 불끈 솟아 선인(先人)들의 칭송을 받았으니, 이 가야산에 오르면 내포 일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이 때문에 내포를 또한 가야산 주위의 고을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 '가야'라는 이름에서 이미 불교의 내음을 맡을 수 있거니와, 백제시대 중국불교의 유입 관문이었던 태안반도 (또는 당진나루)를 감싸안듯이 지켜보고 있는 이 산은 불교유산의 숨겨진 보고이다.

## 2. 내포의 마애불 : ‘백제의 미소’



태안마애삼존불

가야산의 불교는 마애불로 시작된다. 백화산 중턱에 있는 태안마애삼존불은 우리 나라 마애불 역사의 첫 장을 여는 작품이다. 사실 마애불은 석굴사원의 원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석굴암으로 대표되는 경주 마애불의 뿌리는 바로 태안에 있는 셈이다. 투박한 솜씨 탓에 예술적 가치에서는 뒤떨어지지만, 여느 마애불과 달리 중앙에 키가 작은 보살입상을 놓고 좌우에 여래입상을 배치하고 있는 독특한 배치는,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계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백제 마애불의 꽃은 상왕산 자락에 있는 서산

마애삼존불이다. ‘백제의 미소’로 더 알려진 이 불상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애불의 전통은 후대로 갈수록, 예산군 화전리 사면석불(보물 794호),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마애석불(보물 355호) 등 내륙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곧 불교 전파의 경로가 된다.

## 3. 한국 근대 선종(禪宗)의 중흥 사찰 : 덕숭산 수덕사

가야산 지맥 덕숭산자락에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수덕사라는 대가람이 자리잡고 있다. 본래 홍성 북쪽 용봉산부터 예산 덕산면 덕숭산과 가야산, 그리고 서산의 상왕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모두 가야의 연봉(連峯)이니, 덕숭산은 그 남쪽 줄기이다. 가야산을 둘러보다 보면, 도처에 넓은 계곡에 펼쳐져 있어서 명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수덕사는 그러한 호방한 기운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백제시대에 건축된 수덕사<sup>1)</sup>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목조건물인 대웅전(국보 제49호)이 남아 있다. 1934년 해체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의하면, 대웅전은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건축되었다. 이 건물은

1) 최완수는 수덕사의 창건 연대를 서산 마애불에 비추어서 위덕왕대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수덕사는 당시에 정치 중심지로 자리를 굳혀가던 홍주(洪州)의 비보사찰이었으며, {대동지지(大東地志)}의 기록에 입각하여 홍주가 곧 주류성이며, 백제 부흥운동의 핵심 인물 중의 한 사람인 도침(道琛) 화상은 수덕사와 관련된 인물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현재 주류성이 어느 곳 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홍주가 정치 중심지로 부각된 시기는 확실치 않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2) 최근 입구에 큰 건물을 세우면서 시야가 가려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식처럼 회자되고 있으므로 논의를 줄이고자 한다.

맞배지붕, 주심포, 평이한 빗살문 등에서 단순소박하면서도 장중하고 엄숙한 멋을 잃지 않고 있으며, 측면의 기둥과 들보는 정제된 규격미를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막상 일반인들에게는 대웅전에서 전면으로 내려다보이는 아늑한 전망이 더욱 매력적이다.<sup>29)</sup> 비록 강원도 산악처럼 빼어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한 산줄기를 오르다 보면, 아늑한 내포 들녘의 평화로움이 한눈에 들어온다.

수덕사에 대한 애정은 관련 인물들로 하여 더욱 커지게 된다. 우선 근대 한국 선종(禪宗)의 중흥조인 경허 성우(鏡虛 惺牛, 1849~1912) 선사의 고족 제자 만공 월면(滿空 月面, 1871~1946)의 자취가 곳곳에 배어 있다. 만공 선사는 결성출신의 만해 한용운(卍海 韓龍雲, 1879~1944)과 교유하면서 한국불교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던 인물로, 수덕사에 금선대(金仙臺)라는 초가 암자를 지어 살면서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가 평생 기거했다는 소림초당(少林草堂), 교육장이었던 능인선원(能仁禪院)과 견성암(見性庵), 1924년에 조성된 용출관음석상(湧出觀音石像), 현대적 양식의 사리탑인 만공탑 등은 모두 그의 손길이 닿은 자취들이다.

수덕사의 또 다른 매력은 비구니들의 수도원이



수덕사

라는 점에 있다. 일찍이 「新女子」를 간행하는 등 여성운동가로 명성을 쌓았던 일엽 스님(金一葉, 1896~1971)이 만공 선사를 만나면서 견성암에서 머리를 깎았다. 현재 견성암의 현판은, 일엽 스님의

뒤를 따르는 100여 명의 여승들의 수도처인 덕숭총림 선방으로 옮겨져 있다.

수덕사의 입구에는 아담한 초가의 수덕여관이 방문객들의 눈을 끈다. 이곳은 현대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고암(顧菴) 이응로(李應魯) 화백의 부인이 경영하는 곳으로, 뜰에는 그의 문자추상화가 새겨진 바위가 있어서 지나치는 길손들을 잠시 머물게 한다.

수덕사는 백제시대 창건된 이래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도 내포 불교계를 대표하는 덕숭총림으로 의연하게 자리잡고 있는 천년 고찰이다.

#### 4. 덕산 가야동의 문화유산

수덕사를 떠난 발길은 덕산 읍내를 거쳐 가야동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복잡한 온천관광단지와 읍내길을 거쳐 서쪽으로 접어들면, 가야봉·석문봉·옥양봉 등 가야산의 주봉(主峰)들로 둘러싸인 계곡으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런데 가야동 초입에서부터 뜻밖의 유적들과 마주치게 된다. 최근에 축조된 옥계저수지 북쪽

태봉은 곧 조선 헌종의 태실이 있었던 유허(遺墟)요, 그 서북쪽으로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백형(伯兄)인 흥녕군(興寧君) 이창응(李昌應)의 묘역이 있다. 저수지 서쪽 끝자락 암벽[玉屏溪]에는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형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그것은 가야동 일대가 원래 그 집안의 사패지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로 개설로 인하여 반쯤은 파묻혀 버린 옥병계에는 숙종조에 김진규가 새겼다는 ‘玉屏溪’, 성수심의 ‘氷裁培’ 등의 글귀가 완연하다.

옥병계를 지나 서북쪽으로 약 25km를 가면 수많은 역사적 일화를 남긴 남연군묘가 있다. 바로 그곳이 가야사(伽耶寺)의 옛터이다. 가야사는 본래 고려시대에 건립된 대가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망이(亡伊)에 의하여 점거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막을 내릴 무렵 다시 남연군묘를 이장하면서 폐사(廢寺)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남연군묘가 옮겨올 당시 이 일대는 윤씨 일문의 소유였다. 앞에서 가야동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여러 유적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남연군묘의 이장과 함께 고종황제 친가 소유로 바뀌었다. 이장을 마친 후에, 흥선대원군은 맞은편 서원산에 큰 아들[李載冕]을 시주자로 하여 보덕사(報德寺)라는 사찰을 창건하였으니, 보덕사는 조선왕실의 마지막

원찰(願刹)인 셈이다. 그러나 보덕사 또한 한국 전쟁으로 소실된 후 다시 지어져서 비구니들의 수도도량으로 변했고, 그 경내에는 가야사에서 옮긴 것으로 보이는 화사석(火舍石)이 남아 있을 뿐이다.

최완수는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수덕사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 말의 내포 불교계를 제압하기 위하여, 덕산 가야동의 가야사와 서산 용현계곡의 보원사를 창건했다고 보았다. 그러했던 가야사가 수덕사보다 모진 시련을 겪은 끝에, 조선왕조와 함께 막을 내린 것이다.

남연군묘의 이장(移葬)으로 대표되는 풍수설에 얽힌 논란<sup>3)</sup>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 최근 들어서 풍수가인 육관대사가 남연군묘 서쪽에 자신의 묘역을 스스로 정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남연군묘는 이미 1989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기념물 8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1998년 12월 29일 가야사지가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150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지정까지도 복잡한 양상을 빚고 있는 셈이다.

내포에는 드물게 큰 산악에 속하고, 더욱이 천하의 명산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으니, 사건이 없을 리 없다. 가야동은 한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다. 그곳에서 계곡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미륵을 뒤로 하고 북쪽 산 속으로는 일제시대의 군사도로가 있고, 그 도로변 밤나무단지가 끝나는

3) 구전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남연군묘는 당시 정만인(鄭萬仁)이라는 지관이 택한 곳으로, 이대천자지(二代天子之地)의 명당이라고 한다.

곳이 서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용현계곡 유원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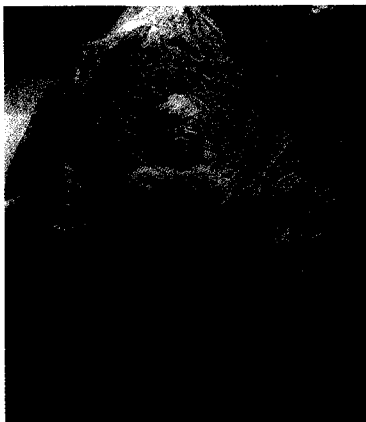
## 5. 용현계곡, 그 유산과 전설

용현계곡에는 국보 84호 서산 마애삼존불상이 있고, 사적 316호 보원사지(普願寺址)에는 여러 점의 보물이 있다. 이러한 불교유산들이 상왕(象王)의 전설과 함께 하고 있어서 찾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서산 마애삼존불상을 만나기 위하여 계곡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에 앞서서 마치 서낭당처럼 돌무더기가 수북한 곳에 서있는 미륵불과 마주치게 된다. 고려말에서 조선초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되는 미륵은, 고풍저수지가 축조되기 전에는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200m 지점 구 도로의 삼거리에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계곡을 향하고 있었다 하여, 주민들은 구구한 해석을 하기도 한다.

미륵과 헤어져서 약 300m를 더 가면 도로 서쪽에 높다란 바위가 버티고 서있다.

인바위[印岩]라 하는 이 암벽에는 상왕이 말[斗] 만한 인장을 숨겨두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서산마애삼존불

있다. 인바위 곁에는 길이 2m, 높이 50cm 정도의 조그만 바위[고양이바위]가 웅크린 자세로 엎드려 있다. 이 바위에도 보원사 홍망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 주민들은 “고양이바위는 개천 건너 숲 속에 있는 쥐바위와 상극인데, 두 바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연결하면서 보원사 일대의 모든 절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작은 암자 100개를 만드는 순간 두 곳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바위 아래 개천으

로 내려가면 개천 양편에 돌다리의 축대가 완연하게 남아 있으니, 그러한 전설을 믿을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원사로 가려면, 서산 마애삼존불 앞의 개천을 건넌음은 확실한 듯하다.

그렇다면 인바위와 고양이바위는 보원사로 들어서는 대문인 셈이다.

서산 마애삼존불로 오르는 길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넉넉하다. 방문객들이 돌을 모아 쌓아둔 조그만 탑 사이로 오르는 계단은, 가파르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 오솔길 중턱에 마애불이 서있다. 양 볼이 도톰하도록 미소를 짓는 이 불상을 마주하노라면 저절로 웃음이 배어 나올 것이다. ‘백제인의 미

4) 대성 아래 군자동(君子洞)은 원래 군장동(軍藏洞)으로 상왕이 군대를 숨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5) 서산문화원, 1991, 「瑞山·泰安文化遺蹟」(上), pp.512~520 ; 서산시, 1998, 「서산시지」 제7권 서산의 문화유적, pp.160~168.

소'라는 발견 당시의 평가에, 빛에 따라 부처의 표정이 달라 보인다는 등의 최근의 설명이 더해지면서, 이미 이 불상은 백제문화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마애불의 서남쪽 산중턱에는 둘레 약 3.5km의 큰 석성(石城)이 남아 있어서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주민들은 이 성을 대성(大城)이라 부르는데, 서쪽으로 보원사지(普願寺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sup>4)</sup>

보원사지는 서산 마애삼존불로부터 남쪽으로 약 1km에 위치한 절터이다. 보원사는 현재 신라 말에서 고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절터에서 출토된 금동여래불상이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추정에 입각하여 백제시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sup>5)</sup>

보원사가 최초로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신라 헌강왕 6년(880)이다. 보조선사장성탑비명에 의하면, 선사는 웅진 사람으로서 흥덕왕 2년(827)에 가랑협산 보원사에서 수구제하였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원사는 그 이전에 창건되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듯하다. 한편 부성태수(富城太守, 893년 부임)를 지냈던 최치원이 남긴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 의하면, 웅주(熊州) 가야협(伽耶峽)의 보원사는 의상(義湘)을 계승한 화엄십사(華嚴十寺)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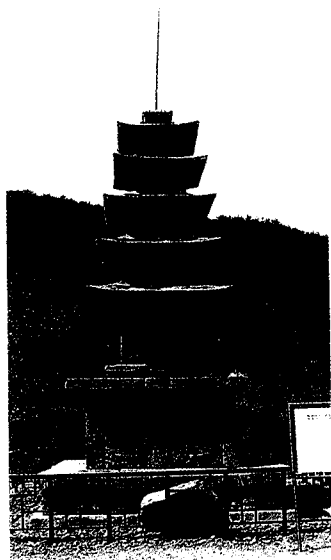
고려시대에 왕권 강화 이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보원사의 사세(寺勢)는 크게 발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남아 있는 주요 유적들이 모두 고려시대에 중건될 당시의 것

들이라는 사실이 그 증거라 할 것이다.

보원사는 화엄종이 약화되기 시작한 고려 무신 정권 때부터 사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보원사가 상왕산에 있다”라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초 까지도 폐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19년의 「호산록(湖山錄)」에는 이미 전우(殿宇)가 모두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니, 보원사는 1530년~1619년 사이에 폐사된 셈이다.

보원사지(사적 제316호)에는 현재 석조(石槽, 보물 제102호), 당간지주(幢竿支柱, 보물 제103호),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법인국사 보승탑(法印國師 寶乘塔, 보물 제105호), 법인국사 보승탑비(寶乘塔碑, 보물 제106호)가 남아 있다.

보원사가 있는 용현계곡 주변 가야산자락에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절터들이 산재해 있다. 전설상의 보원사에 속한 100번째 암자라는 백암사지(白庵寺址)가 옥양봉 아래에 있고, 원평리 신사동과 의현동 일원, 그리고 서쪽으로 용현



보원사지 5층석탑

리 보현동까지 알려지지 않은 절터는 모두 조사를 기다리는 미답의 유적들이다.

## 6. 가야산 서쪽의 고찰들

가야 연봉의 서쪽 사면의 불교유적은 태봉리의 문수사(文殊寺)로부터 시작된다. 제3공화국 삼선 개헌 당시에 조성한 목장을 지나면 명종대왕의 태실(胎室)이 있는 태봉리에 이르게 되고, 다시 문수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사(山寺)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가야산록 서북쪽의 목초지는 우리의 눈에는 낯설게 느껴진다.

태봉산(胎封山) 서쪽 아래 마을은 태봉리요, 동북쪽 문수사 아래 마을은 문수동이다. 태봉리는 태실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일테고, 문수동은 문수사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 주민들에 의하면, 가뭄에는 태실에서 기우제를 지낸 적도 있다 하니, 민간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보는 듯하다.

수덕사가 아래 들녘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대가람이라면, 문수사는 모퉁이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작은 절이다. 1973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금동아미타불좌상의 복장기(伏藏記)를 조사하여 1346년 이전에 창건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호산록」에는 이미 폐사되었다고 하니 용현계곡의 보원사와 흥망을 같이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남아 있는 문수사의 건물과 유물은 모두 16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극락보전은 주심포계와 다포계를 절충한 맞배지붕의 건물로 지붕이 들려 있는 듯한 인상의 조선후기 건물이다. 그 안에는 1346년에 만들어진 금동아미타불좌상, 1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16나한상, 1774년 제작된 지장보살도, 1892년 김금어가 제작한 신장정화(神將幀畵) 등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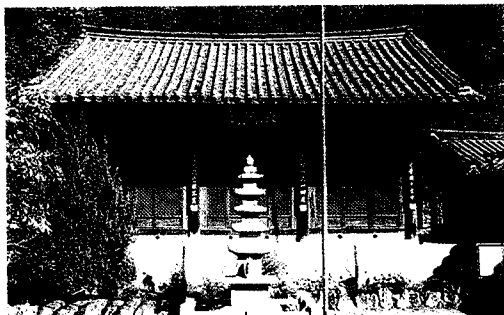
개심사를 찾는 길도 목초지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개심사로 들어서는 초입에서 서해안고속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 곧 그 육교 아래를 통과하여 개심사로 가게 될 것이다. 개심사 가는 길에서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농가들을 지나면 신창저수지의 높은 제방을 마주하게 된다. 그 제방을 따라 비스듬하게 난 길을 가로질러 남쪽 언저리에 오르면 맑은 호수를 대할 수 있다.

저수지를 굽이돌아 한참을 가다보면, 개심사 아래 사하촌(寺下村)인 동구말에 도착하게 된다. 동구말에서도 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개심사에서 일락사로 가는 임도(林道)라 하는데, 자연의 훼손 여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 동구말 초입 저수지 끝자락에 외롭게 서있는 느티나무는 동구말의 서낭나무라 한다. 이 나무 때문에 도로가 비껴간다



문수사





개심사대웅전

고 하니, 옛날과는 다소 달라진 행정당국을 보는 듯하다.

일제시대의 기록에는 개심사 주변에 수령 천년이 넘는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피나무·밤나무·참나무·모감주나무·향나무·단풍나무 등이 군락을 이룬다고 했으나, 지금은 동구말에서 개심사 길로 접어드는 입구 양쪽에 느티나무가 눈에 띈다. 오히려 방문객들을 반기는 것은 가슴까지 후련하게 해주는 짙은 적송(赤松)들의 고운 자태와 은은한 솔향이다.

호젓한 길을 지나 경내로 접어들라치면, 굵은 나무를 그대로 살린 종루(鐘樓)를 지나게 된다. 온통 굵은 나무로만 지은 듯한 심검당(尋劍堂,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8호)이나 요사채의 진면목을 먼저 엿보게 하는 건물이다. 이 절에서는 굵은 나무를 그대로 살린 멋을 한껏 엿볼 수 있다. 개심사는 이처럼 자연스러움이 매력인 곳이다.

개심사에는 대웅전(보물 제143호), 영산회괘불탱(靈山會掛佛幀, 보물 제1264호), 명부전(冥府殿,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4호), 심검당 등의 문화재가 있지만, 정작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1941년 대웅전을 해체 수리할 때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1484년에 대웅전을 중창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사찰과 관련된 일화들이 더 우리의 관심을 끈다. 자연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선초기 건축물 심검당에 근대 한국 선종(禪宗)의 중흥조인 경허 성우(鏡虛 惺牛, 1849~1912)가 거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교도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역사의 향기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왕비와 부마도위를 배출하고 김정희라는 큰 학자를 낳았던 경주 김씨와의 인연은 조선 후기 역사의 뒷면을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만든다.

속칭 ‘한다리 김씨’라고 부르는 집안과의 인연은 김연(金堧, 1494~?)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계모 황씨의 고향이 바로 한다리였는데, 증손 김홍욱(金弘郁, 1602~1654) 대에 이르러서 명문가로 등장한다. 그리고 현손 김한신(金漢蓺, 月城尉)이 영조의 따님인 화순옹주(和順翁主)와 혼인하고, 또한 그의 8촌 형제인 김한구(金漢耆)의 장녀가 영조의 계비(繼妃, 貞純王后)가 되니, 한다리 김씨는 왕실과 연혼(連婚)을 맺은 내외척(內外戚)이 되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추사 김정희는 바로 월성위 김한신의 증손이다.

한다리 김씨와 개심사와의 인연은 아주 초기부

터 시작되었던 듯하다. 김연의 계모 황씨의 묘소가 개심사의 내청룡에 해당되는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음은 그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런 탓인지 철종 때 개심사 중창에는 김씨 일문이 대대적으로 참여한다. 김홍욱을 비롯한 김적(金積)의 네 아들의 후손들이 모두 불사에 참여하였음은 물론이요, 상궁(尙宮) 우씨와 함께 서산군수와 당진현감이 시주로 있었다는 사실은 왕실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추사 김정희를 실학의 대가라 칭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과연 실학이 몰락한 남인계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인연이 있으니 개심사를 들르는 길에 추사고택과 함께 서산 음암면 유계리 한다리마을의 정순왕후생가(충청남도 기념물 제68호), 김기현고가(중요민속자료 제199호), 그리고 김적의 자취가 남아 있는 용유대와 단구대를 거치는 여정도 생각해볼 만한 것이다.

아직 임도(林道)가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일락사로 가려면 해미읍성을 거쳐야 한다.

성곽 동쪽을 감싸 돌다가 하천을 건너면 일락골에 있는 황락리라는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을 지나는 도중 회관 뒤편을 보면 미륵불이 조용히 서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4방향의 비보장승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또한 많은 외부인들이 다녀가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마을 사람들은 무덤덤하며, 마을회관 자리에 있던 서낭나무에서 서낭제를 지낼



해미읍성

때에도, 미륵을 모신 일은 없다고 한다.

황락리 미륵불을 지나 일락사로 가는 길에도 큰 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가야산 서쪽 사면에는 큰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논농사를 짓기 위하여 골짜기마다 물을 가둔 때문이다.

석문봉 아래에 위치한 일락사에는 고려시대의 양식인 3층 석탑이 있으나, 창건연대는 불확실하다. 다만 1649년 해미읍성을 중수할 때 일락사 대웅전을 함께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관심을 끈다.

현재 해미읍성은 천주교도의 순교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미읍성은 왜구가 준동하던 조선 태종 14년(1414) 가야산 너머 덕산에 있던 충청병마절도사영을 옮긴 후 효종 2년(1651)

다시 청주로 이전하기 전까지 충청도 서해안의 군사 요충지였던 곳이다.

현 해미읍성에서 서북쪽으로 서산까지 뻗은 국도변에 위치한 반양리에는 구해미[또는 반계]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불과 2km 지점까지 바닷물이 차올랐다고 하니, 해미읍성은 육지와 바다를 겸할 목적으로 가야산을 등져서 설치된 군사시설로 보아 틀림이 없을 듯하다. 그리고 1649년의 일락사 중수도 이와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 7. 미륵 이야기

일락사로 가는 황락리에도 미륵이 서있거니와,



일락사칠불

조산리와 반양리에도 미륵이 있고, 얼마 전에 분실되기 전까지도 가야산 중턱 산수리에도 있어서 미륵불을 보기 위하여 해미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부 민속학자들은 주민들의 전언을 그대로 믿고,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4방향에 세워진 비보장승이며, 최근까지도 주민들이 공동의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보(裨補)를 위하여 세워졌는지도 확실치 않으며, 막상 최근의 공동의례

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현재 반양리 미륵이 있었던 곳에서는 중창이라는 명분을 걸고 사찰 건립이 한창이다. 또한 조산리 미륵에는 매년 두 차례씩 무속인들이 찾아와 굿판을 벌인다. 황락리 미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산수리에서는 산수저수지 축조와 함께 마을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와중에 분실되었다. 그러고 보면 미륵불의 운명도 한가지는 아닌 듯싶다.

이 네 곳의 미륵불들이 과거 사찰의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바가 아니겠거니와, 그 수는 이것만이 아니다. 필자가 답사를 다니면서, 최근에 유실된 미륵, 인근 사찰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가야산 주변에 부지기수로 흩어져 있는 미륵들에 관해서는, 최소한 실태 조사는 있어야 될 것이다.

## 8. 내포의 불교전통

가야산은 한눈에 내포 일대를 두루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명산으로서 손색이 없으니, 백제시대 이래로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불교유적들이 남아 있다. 더욱이 덕산온천이 유명하고, 윤봉길 의사의 유적이 같이 있고, 최영·성삼문·최익현·김좌진·한운운 선생의 유적지도 멀지 않다. 조선 고종황제 일가의 묘역도 가야산 주변에 자리잡고 있으니, 이처럼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도 흔치 않을 것이다.



가야산 계곡

과거 명당으로 꼽혔으니 명산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까닭에 문화유산이 준비할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보배가 세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 까닭은 산업사회로의 변신에서 찾아야 한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의 축을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라 하듯이, 교통로도 서울과 부산을 잇는 선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런 이유로 교통의 오지로 전략한 곳이 많았으니, 가야산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알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탐방하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떠올리게 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서해안고속도로가 공사중이니, 상황은 또 일변할 순서인 듯하다. 2001년 개통을 눈앞에 두었으므로, 한국 최대의 소비지라 할 수 있는 수도권은 이제 곧 지척의 거리로 바뀌게 된다. 정책담당자라면 파땅히 이에 대비할 때가 되어 가는 셈이다.

필자가 가야산에 대한 연구조사를 제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개발을 위해서는 고증 작업과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연구 작업 자체가 광범위한 홍보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엄밀한 의미의 학술조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탐방기 형태의 가벼운 기행문도 마다할 필요가 없다. 가극·(대중)가요·사극 등 문학이나 예술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제 독자들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인정한다면, 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도 무방할 듯하다. 사실 최근에 붓물처럼 쏟아지는 문화유산 답사기들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한 글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때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미학적 논의는 이제 한계에 온 듯하다. 예술품이란 감탄을 끌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보다 큰 감동은 예술적 치장만이 아니라, 깊숙이 감추어진 삶의 흔적을 접했을 때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무대 위에서 펼쳐졌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야산자락을 휘감고 지나가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이전에, 찬란했던 가야산자락의 불교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 **열린충남**